東洋學 第89輯(2022年 10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신자료『열하일기』선행본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연구

정 재 철*

▌국문초록▐

필자는 최근 단국대 연민문고에서『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가 박지원의 산문 작품과 함께 1책으로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연행음청기』(3)은 표지를 포함해 총 32장으로 되어 있고,『연행음청록』(4)는 표지나 목록 없이 본문만 총 30장으로 되어 있다. 이 두 책은『열하일기』이본 중에서 '초고본 계열'에 속하는 이본으로『열하일기』제3편「성경잡지」와 제4편「일신수필」의 최초의 원고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이를 확인할 목적으로 국내외에 소장된『열하일기』이본 중에서 표제가 "연행음청"으로 되어 있는 이본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이본들과『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의 선후 관계와 교정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국대 연민문고에는『연행음청(건)(곤)』2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연행음청(곤)』은 표지를 포함해 총 22장으로 되어 있다. 이 책에는 5월 10일 연암에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시작해 7월 30일에 호타하에서 조림까지 40리를 이동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 씌어 있는 연행 일정은『열하일기』「도강록」에 기록된 6월 24일보다 44일이 많고,「관내정사」에 기록된 8월 5일보다 닷새가 적은 것이다. 박지원은『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를 저술하면서 위와 같이 80일간의 연행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연행음청(곤)』의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본 풍물과 체험을 상세하게 추가하였다.

일본 동양문고에는 표제를 '연휘'라고 적어놓은 필사본 중『연행음청(1)(2)』2책과『열하일기(1)(2)(3)(4)(5)(6)』6책을 합쳐놓은『연암설총』8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연행음청(1)』은「도강록」과「성경잡지」를 필사한 것이고,『연행음청(2)』는「일신수필」과「관내정사」를 필사한 것이다. 또한 단국대 연민문고에는『행계잡록(1)(2)(3)(5)(6)』5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행계잡록(1)』은「도강록」과「성경잡지」를 필사한 것이고,『행계잡록(2)』는「일신수필」과「관내정사」를 필사한 것이다.『연행음청(1)(2)』는 박지원이『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의 원문을 개작에 가까울 정도로 대폭 교정한 것을 후에 누군가가 다시 필사한 것이고,『행계잡록(1)(2)』는 박지원이 앞서 대폭 교정한 내용을 다시 교정해 직접 필사한 것이다. 본 연구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열하일기』'초고본 계열' 이본의 계통을 규명하거나『열하일기』의 성립과정과 원문의 교정 양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열하일기, 박지원, 연행음청기, 연행음청록, 연행음청, 연암설총, 행계잡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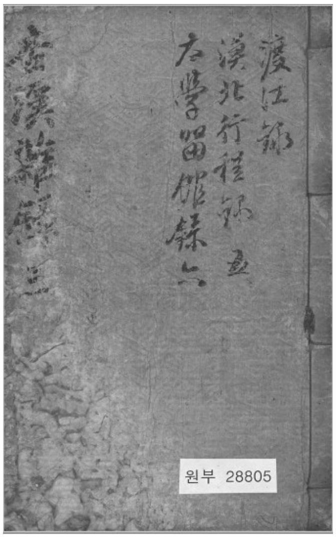
* 단국대학교 한문교육과 교수 / jjaechul@dankook.ac.kr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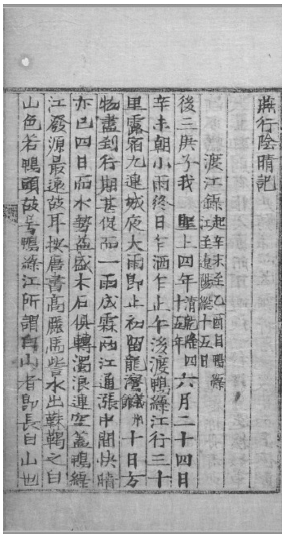
Ⅰ. 머리말
Ⅱ. 『연행음청(곤)』과의 관계
Ⅲ. 『연행음청』 이본과의 관계
Ⅳ. 맺음말

Ⅰ. 머리말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간행한 『연민문고소장 연암 박지원작품 필사본총서』에는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에 해당하는 『행계잡록(1)(2)(3)(5)(6)』 5책이 수록되어 있다.[1] 그 중 『행계잡록(3)』의 표지에는 “杏溪雜錄 三”이라는 표제가 씌어 있고, 표제 우측에는 “渡江錄/ 漢北行程錄 五/ 太學留館錄 六”이라고 씌어 있다(〈사진 1〉 참고). 제1장에는 “燕行陰晴記目錄/ 渡江錄”이라는 표제 목록과 편명이 씌어 있고, 제2장에는 “渡江錄序”가 씌어 있다. 제3장 제1행에는 “燕行陰晴記”라는 표제가 씌어 있고, 제3행에는 “渡江錄”이라는 편명 아래 “辛未”로 시작되는 주석이 씌어 있다(〈사진 2〉 참고). 또한 이 책의 제43장 제1행에는 “熱河日記卷之一”이라는 표제와 권수가 씌어 있고, 제3행에는 “漢北行程錄”이라는 편명이 씌어 있다(〈사진 3〉 참고). 위와



〈사진 1〉『행계잡록(3)』
표지
(연민문고본)



〈사진 2〉『행계잡록(3)』
제3장 「도강록」
(연민문고본)

〈사진 3〉『행계잡록(3)』
제43장 「막북행정록」
(연민문고본)

1)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2)(3)(5)(6)』, 『연민문고 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2)』(이후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라고 칭함),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같이 이 책의 제4장에 씌어 있는 "도강록"은 표제가 "연행음청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卷次도 부여되지 않았다. 이로 미루어 『행계잡록』(3) 「도강록」은 『행계잡록』 제1책 「도강록」의 선행본으로서, 현전하는 이본 중 「도강록」의 최초의 원고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2)]

필자는 최근 단국대 연민문고에서 표제와 권수가 "燕行陰晴錄卷之四"라고 씌어 있는 1책과 표제와 권수가 "燕行陰晴記卷之三"이라고 씌어 있는 1책이 함께 묶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3)] 본 논문에서는 이 두 책의 이름을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으로 부르기로 한다.[4)] 이 두 책의 뒤에는 이 박지원의 산문 작품 「愚夫艸書」 등 총 19편이 붙어 있다.[5)] 그중 『연행음청기』(3)은 표지를 포함해 총 32장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燕行陰晴錄"이라고 쓰여 있고(〈사진 4〉 참고), 제1장에는 "燕行陰晴錄目錄/ 盛京雜識/ 盛京伽藍記/ 粟齋筆談/ 商樓筆談/ 古董錄/ 遼東白塔記/ 廣祐寺記/ 舊遼東記/ 關廟記"이라는 목록이 씌어 있다. 제2장 제1행에는 "燕行陰晴記卷之三"이라는 표제와 권수가 씌어 있고, 제2행에는 "盛京雜識"라는 편명이 씌어 있으며, 제3행에는 "乾隆四十五年"으로 시작하는 「성경잡지」의 본문이 씌어 있다(〈사진 5〉 참고). 위와 같이 이 책의 표지와 제1장 목록에는 표제가 "燕行陰晴錄"라고 씌어 있고 본문 제1행에는 "燕行陰晴記"라고 씌어 있는 것에서 보듯이, 이 책은 아직 표제조차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열하일기』 제2편 「성경잡지」의 초기 형태를 지니고 있다.

『연행음청록』(4)는 앞서 『연행음청기』(3)과는 달리 표지나 목록 없이 본문만 총 30장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제1행에는 "燕行陰晴錄卷之四"라는 표제와 권수가 씌어 있다. 제2행에는 붉은 글씨로 "馹汎隨筆"이라는 편명이 씌어 있고, 제3행에는 "廣寧雜誌"라는 편명이 씌어 있다. 제4행에는 "四年秋七月十五日"로 시작되는 「광녕잡지」의 본문이 씌어 있다(〈사진 6〉 참고). 위와 같이 이 책은 제1장 제3행에서 "廣寧雜誌"라고 씌어 있는 편명을 제2행에서 "馹汎隨筆"이라고 바꾸어 놓은 것으로 보아, 『열하일기』 제3편 「일신수필」의 편명이 처음에는 「광녕잡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열하일기』 이본에서 「일신수필」의 편명이 「광녕잡지」로 씌어 있는 이본은 이 책이 유일하다.

앞서 살폈듯이 현재 학계에서는 『행계잡록』(3)에 수록된 『연행음청기』 「도강록」이 현전하는 이본 중에 「도강록」의 최초의 원고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필자가 최근 확인한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는 『열하일기』 제3편 「성경잡지」와 제4편 「일신수필」의 최초의 원고이거나 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에 소장된 『열하일기』 이본 중에서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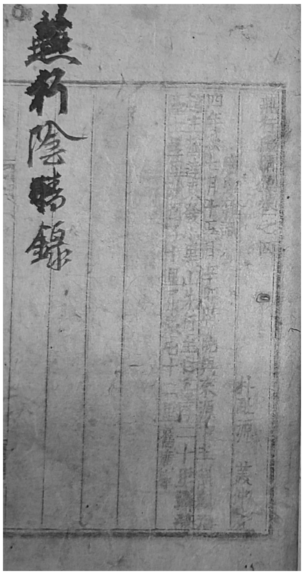
---

2) 김명호, 「『행계잡록(1)(2)(3)(5)(6)』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1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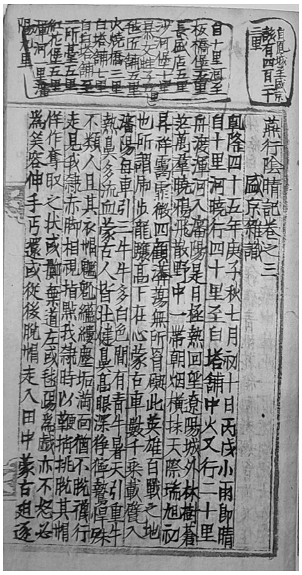
3) 연민문고본, 『연행음청록』(4)·『연행음청기』(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이 두 책의 서지 형태는 上下單邊에 半廓 14×8.4cm, 界線이 있고 10행 20자에 註雙行이며, 上下內向魚尾에 크기는 20.2×11.4cm이다. 이 두 책의 소장 정보는 석주선기념박물관에 재직 중인 기수연 선생이 알려 주었다. 이 논문을 통해 기수연 선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 이 책은 『연행음청기』(3)이 『연행음청록』(4)의 뒤에 합철되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연행음청기』(3)을 먼저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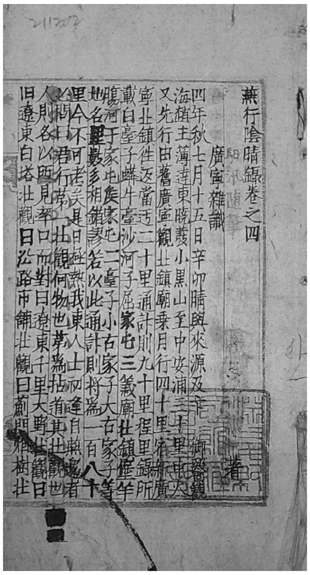
5) 이가원 선생은 1968년에 쓴 논문에서 "「廋詞小引」이란 글이 "『연행음청』 제4책 끝에 실려 있었다."라고 하였다(이가원, 「『연암집』 逸書·逸文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168쪽). 이가원 선생이 말한 "『연행음청』 제4책"은 『연행음청록』(4)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박지원 작품 19편은 다음과 같다. 「愚夫艸書」, 「愛吾廬記」, 「馬首虹飛記」, 「翠眉樓記」, 「醉踏雪從橋記」, 「兪景集哀辭」, 「李夢直哀辭」, 「素玩亭記」, 「桃花洞詩軸跋」, 「楓嶽堂集序」, 「答南壽牘」, 「答□□牘」, 「遯巖集序代」, 「孝子贈司憲府持平尹公墓碣銘」, 「祭外舅處士遺安齋李公文」, 「柳氏圖書譜序」, 「李子厚賀子詩序」, 「愛吾廬記」, 「廋詞小引」.



〈사진 4〉『연행음청기』(3)
표지
(연민문고본)



〈사진 5〉『연행음청기』(3)
장2 「성경잡지」
(연민문고본)



〈사진 8〉『연행음청록』(4)
장1 「광녕잡지」
(연민문고본)

제가 "연행음청"으로 되어 있는 이본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 이본들과 『연행음청기』(3) · 『연행음청록』(4)의 선후 관계와 교정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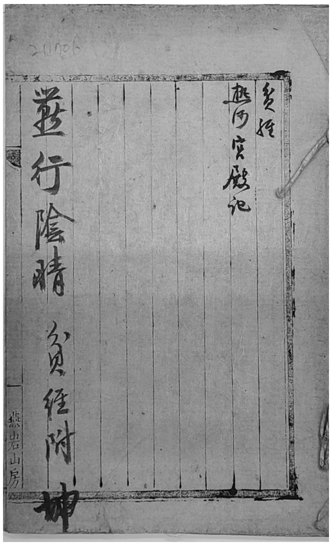
Ⅱ. 『연행음청(곤)』과의 관계

단국대 동양학연구원에서 간행한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에는 '『열하일기』 초고본 계열'에 해당하는 『연행음청(건)』이 수록되어 있다.6) 이 책은 『열하일기』 중 제21편 「黃圖紀略」을 주로 필사한 것이다. 표지에는 "燕行陰晴 乾"이라는 표제가 씌어 있고, 그 우측에 "關內程史 本艸/ 天涯結隣集 脫出 在散稿第二冊中"이라고 씌어 있다. 내표지에 "열하일기"라는 표제가 씌어 있고, 그 우측에 "黃圖紀略/ 天涯結隣集"이라고 씌어 있다. 이어서 「황도기략」과 「謁聖退述」 및 「盎葉記」의 목록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다.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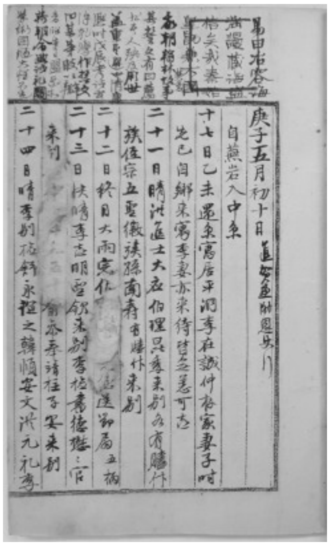
그런데 필자는 최근 단국대 연민문고에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은 『연행음청(곤)』이 소장된 것을 확인하였다.8) 이 책은 표지를 포함해 총 22장으로 되어 있다. 표지에는 왼쪽에 "貧經/ 熱河

6)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건)』,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7) 김명호, 「『연행음청』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18쪽.
8)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이 책이 처음 학계에 알려진 것은 이가원 선생에 의해서이다. 선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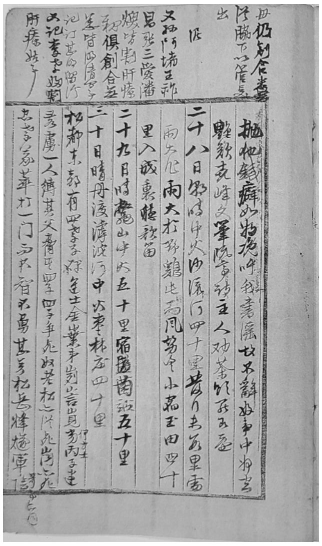
宮殿記"라고 씌어 있고, 오른쪽에 "燕行陰晴 貧經附 坤"이라고 씌어 있다(〈사진 7〉 참고). 제1장에서 제2장까지는 冷朝陽이 편집하고 李陽氷이 교정한 「빈경」이 씌어 있고, 제3장에서 제4장까지는 편집자와 교정자가 제시되지 않은 「빈경」의 원문이 씌어 있다. 제6장에는 「열하궁전기」가 씌어 있다. 제9장 제1행에는 "경자년 5월 초 10일.[庚子五月初十日]"이라는 원문과 그 아래에 "진하겸사은사행.[進賀兼謝恩使行]"이라는 주석이 씌어 있고, 제2행에는 "연암으로부터 개성에 들어가다.[自燕巖入中京]"라고 씌어 있다. 제3행에는 "17일 을미에 서울로 돌아와 仲存 李在誠의 집에 우거하였다.……[十七日乙未. 還京, 寓居李在誠仲存家.……]"라고 씌어 있다(〈사진 8〉 참고). 마지막 제22장 제7행에는 "30일. 맑음. 배로 滹沱河를 건너다. 한낮에 무더웠다. 棗林. 40리.[三十日. 晴. 舟渡滹沱河. 中火. 棗林. 四十里.]"라고 씌어 있다(〈사진 9〉 참고).



〈사진 7〉『연행음청(곤)』 표지
(연민문고본)



〈사진 8〉『연행음청(곤)』 장9
(연민문고본)



〈사진 9〉『연행음청(곤)』 장22
(연민문고본)

『열하일기』 중 제1편 「도강록」, 제2편 「성경잡지」, 제3편 「일신수필」, 제4편 「관내정사」 등 4편은 6월 24일 압록강을 건너는 것에서 시작해 8월 5일 북경에서 열하로 출발하기 이전까지 총 40일간의 연행 기록을 적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열하일기(곤)』은 5월 10일 박지원이 연경에 가기 위해 은거해 있던 연암골에서 개성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어 5월 17일에 서울로 돌아와 평동에 있는 처남 이재성의 집에 거처하다가, 5월 25일에 서울에서 출발하여 6월 24일에 압록강을 건넜고, 마지막으로 7월 30일에 배로 호타하를 건너 조림까지 40리를 간 것으로 끝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책에 기록된 처음 날짜는 『열하일기』

이 책을 소개하면서 "경자(庚子) 5월 초10일부터 9월 30일에 이르는 일기이다. 「도강록」이 6월 24일에 시작되었음에 비하여, 5월 초10일부터 6월 23일까지의 일기가 위에 붙여 있는 편이다"라고 하였다(이가원, 「『연암집』 逸書 · 逸文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39 · 4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166쪽).

제1편 「도강록」에 기록된 6월 24일보다 44일이 많고, 마지막 날짜는 『열하일기』 제4편 「관내정사」에 기록된 8월 5일보다 닷새가 적은 것이다.

『열하일기』가 초기에 저작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연행음청(2)』에 씌어 있는 5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의 연행 기록이 『열하일기』의 초기 필사본에 해당하는 『연행음청기』(3) · 『연행음청록』(4)에 수록된 「성경잡지」와 「일신수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열하일기(곤)』과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의 원문을 대조하여 상호 관련 양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행음청(곤)』과 『연행음청기』(3)

『연행음청기』(3)에 수록된 「성경잡지」에는 7월 10일 심리하를 출발해 1월 14일 소흑산에 이르기까지의 여행기록과 심양에 체류하며 겪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80일간의 연행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연행음청(곤)』의 내용을 활용한 점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행음청(곤)』과 『연행음청기』(3)에 수록된 ‘7월 10일’ 조목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연행음청(곤)』과 『연행음청기』(3)의 ‘7월 10일’ 조목의 원문 비교

燕行陰晴 坤	①初十日 小雨 中火 白塔鋪 四十里 舟渡渾河 入瀋陽 二十里 ②三使少憩郭外關廟 改服乘馬去 盖文武成班以入市肆 繁華富麗 十倍遼東 ③兵部郎中福寧 年可七十 就余劃地酬酌 因引余入廟中 筆談 爲人魁特俊偉方與酣暢 入門期促 使行遂發 不待已起別 可惜[9]
燕行陰晴記 卷之三 盛京雜識	①乾隆四十五年庚子 秋七月初十日丙戌 小雨卽晴 自十里河 曉行四十里 至白塔鋪 中火 又行二十里 舟渡渾河 入瀋陽 是日極熱 回望遼陽城外 林樹蒼茫 萬點曉鴉 飛散野中 一帶朝煙 橫抹天際 瑞旭初昇 祥霧霏靄 四顧漭蕩 無所罥礙 噫 此英雄百戰之地也 …중략… 渡河行數里 有土城不甚高 土城外 有烏牛數百頭其色正黑如漆 大池百頃 瀲灩紅蓮盛開 鵝鴨無數浮泳 池邊白羊千餘頭 方飮水 見人皆矯首立 ②-1入外郭門郭內民物之繁華 市肆之侈盛 十倍遼陽矣 ②-2入城外關廟少憩 三使具官服 ③-1有一老者 披秀花紬單衫 光頭垂辮 就余長揖道 辛苦 余答揖 熟視余所着泥鞋 意似詳觀制作 余卽脫示一隻 廟中走出一個道士 身披一領野繭紗道袍 項戴藤笠 足穿貢緞黑靴 脫笠自撫其髻曰 與相公一樣 那老者自脫其履 換着我鞋 問此鞋子甚皮造成 余答道 驢兒皮 問履底甚皮 余答道 牛皮 油漆熱堅 能踏泥不濕 老者及道士 齊聲稱佳 又道這鞋子衝泥雖便 還恐旱道足繭 余答道 儘然 ③-2那老者引余入廟堂裏 那道士手注兩椀茶各勸飮 那老者書示姓名③-3福寧滿洲人見任盛京兵部郎中 年六十三 避暑城外 大池荷花盛開 閒走一遭 方纔回來 ③-4問相公官居幾品 年紀多少 余答姓名 身是秀才 爲觀光上國來 賤降丁巳 問日月生時 余答二月初五日丑時 問蝦 余答不是蝦 福寧問這位上首坐的 前年來使 俺自京師還時 到玉田 數日同站 這是翰林出身麽 余答不是翰林出身 駙馬都尉 與俺爲族兄弟 問到副使書狀 各以姓名官品爲對 ③-5使行改服臨發 余辭起 福寧前執手曰 行李保重時方秋暑益熾 切戒生菰冷飮 俺家住西門內騾馬場南邊 門首題着兵部郎中 又有金字題癸酉文科 尋訪容易公子回期 可在何時 余曰 似於九月中還到盛京 福寧曰 自無公幹時 當倒屣逢迎 旣識貴庚日時 靜當推籌 以俟尊駕 辭氣殷勤 頗有惜別之意 道士尖鼻會睛 動止輕佻 全沒款曲 ③-6福寧爲人魁特磅礡 ②-3三使次第乘馬去 盖文武成班入城 城周十里 甎築八門樓 皆三簷 護以甕城 甕城左右 亦有東西對門 通衢築臺 爲三簷高樓 樓下出十字路 轂擊肩磨 鬧熱如海 市廛夾道 彩閣雕牕 金扁碧榜 貨寶財賂 充㓛其中 坐市者 皆面皮白淨 衣帽鮮麗 …하략…[10]

〈표 1〉에서 『연행음청(곤)』에 기록된 '7월 10일'의 내용은 의미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①"初十"부터 "十里"까지 23자로 날씨와 이동 지역, 이동 거리를 말한 부분이다. 이곳에는 이날 비가 조금 내렸으나 한낮에는 뜨거웠고, 40리 거리인 백탑보를 지나고 배로 渾河를 건너 20리 떨어진 심양에 들어간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연행음청기』(3)에는 ①과 같이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初十日'은 "乾隆四十五年庚子, 秋七月初十日丙戌."라고 하여 연호와 년도, 달 수와 간지 일이 추가되었고, "小雨"에는 "卽晴"이 추가되었다. 이어 "中火"는 "至白塔鋪"의 뒤로 옮겨지고, 끝에 "是日極熱"이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다음 "白塔鋪. 四十里."는 "自十里河, 曉行四十里, 至白塔鋪."라고 하여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고, "舟渡渾河, 入瀋陽, 二十里."는 "又行二十里, 舟渡渾河, 入瀋陽."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연행음청(곤)』에서 ②"三使"에서 "遼東"까지 30자는 三使가 심양성 밖에 있는 關廟에서 文班과 武班이 각자의 옷을 입고 말을 타고 도심으로 들어갔는데, 번화함과 부려함이 요동성보다 10배 더하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연행음청기』(3)에는 ②-1, ②-2, ②-3으로 나뉘어 묘사되었다. 먼저 『연행음청(곤)』의 "繁華富麗, 十倍遼東."이 ②-1"入外郭門, 郭內民物之繁華, 市肆之侈盛, 十倍遼陽矣."라고 하여 성안의 모습이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이어 『연행음청(곤)』의 "三使少憩郭外關廟 改服乘馬去 盖文武成班以入市肆."가 ②-2의 "入城外關廟少憩, 三使具官服."과 ②-3의 "三使次第乘馬去, 盖文武成班入城."으로 나뉘어 관복을 입는 장면과 말을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연행음청(곤)』에서 가장 변화가 큰 곳은 ③"兵部"에서 "可惜"까지 49자이다. 이곳은 나이가 70세 정도인 병부낭중 福寧이 박지원을 데리고 關廟에 들어가 필담하며 함께 술을 마셨는데, 성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촉박하고 사행도 환복이 이미 끝나 서로 이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연행음청기』(3)에는 ③-1에서 ③-6까지 나뉘어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먼저 『연행음청(곤)』의 "兵部郎中福寧. 年可七十, 就余劃地酬酌."이 ③-1"有一老者, 披秀花紬單衫, 光頭垂辮, 就余長揖道, 辛苦.", ③-2"那老者, 引余入廟堂裏.", ③-3"福寧滿洲人見任盛京兵部郎中, 年六十三." 등으로 나뉘어 복녕의 행동과 나이, 출신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이어 『연행음청(곤)』의 "筆談"은 ③-4"問相"에서 "爲對"까지 114자에 걸쳐 두 사람 간의 필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씌어 있다. 다음 『연행음청(곤)』의 "爲人魁特俊偉."는 ③-6"福寧爲人魁特磅礴."으로 바뀌었고, "方與酣暢, 入門期促. 使行遂發, 不待已起別, 可惜."은 ③-5"使行"에서 "之意"까지 119자에 걸쳐 연암과 복령이 석별의 아쉬움을 표하는 장면이 상세하게 묘사되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박지원은 『연행음청(곤)』에 7월 10일에 십리하를 출발해 7월 14일에 소흑산에 도착하는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였고, 이후 그는 이 책에 적어놓은 내용을 활용하여 『연행음청기』(3)의 「성경잡지」를 쓴 것으로 생각된다.

9)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30~31쪽.
10)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3~13쪽.

2. 『연행음청(곤)』과 『연행음청록』(4)

『연행음청록』(4)에 수록된 「광녕잡지」에는 7월 15일 신광녕을 출발하여 7월 23일 산해관에 이르기까지 연도에서 보고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 또한 앞서 살펴본 『연행음청기』(3)과 같이 『연행음청(곤)』의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본 풍물과 체험을 상세하게 추가하였다. 또한 『연행음청(곤)』에 수록된 내용 중 일부는 『연행음청록』(4)가 아닌 『열하일기』의 다른 편을 저술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연행음청(곤)』과 『연행음청록』(4)의 '7월 15일'의 원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행음청(곤)』과 『연행음청록』(4)의 '7월 15일' 조목 원문 비교

燕行陰晴 坤	㈎①十五日 晴 中火 安浦三十里 郞儀淸如卞季函趙主簿達東 先往北鎭廟 ②-1廟在醫巫閭山下 ②-2廟宇壯 麗 ②-3臺榭亭閣 窮極奢華 ②-4牌樓高可五六丈 純石琱鏤 ②-5五門庭有嘉靖萬曆間七碑 ②-6西墻內小巖 明時號翠雲屛 今呼補天石 ②-7皇帝咏西庭半枯松 且手畫刻烏石坎 置壁間 忙謄其詩曰 鎭廟門西似盖松 半 存枯幹半籠葱 凝神如見抱朴子 圖貌慙非陳所翁 立下忽疑晴與晦 現前可悟色兮空 何當六月其根坐 讀疏仡 聽謖謖風【乾隆宸翰】 ㈏③甲戌 東巡親祀北鎭 禮成 周覽廟中 有古松已枯其半 槎枒如鐵石 東幹鬱葱蒼翠 奇致夭矯 因立樹下 寫 爲是圖【九月廿四御筆】引曰【天地爲師】 ㈐④又有三韓人金鼐詩 時登醫巫閭山頭 雲舍滄桑望裏收 石髮巖衣嫌跡擾 鳥啼蟬噪帶人幽 凌空樹古龍飛去 傍地花新鳳壘留 北斗惟神天一柱 億年萬紀庇皇秋 有印和公 似是詩東人 故而立謄 ㈑⑤往返幾迂二十里 乘月還宿新廣寧[11]
燕行陰晴錄 卷之四 廣寧雜識	①四年秋七月十五日辛卯 晴 與來源及卞太醫觀海趙主簿達東 曉發小黑山 至中安浦三十里 中火 又先行由 舊廣寧 觀北鎭廟 ⑤乘月行四十里 宿新廣寧 北鎭往返當迂二十里 通計則九十里 程里錄所載白臺子蟒牛臺 沙河子屈家屯三義廟北鎭堡羊腸河于家屯矦家屯二臺子小古家子大古家子等地名里數 多相錯謬 若以此通計 則將爲一百八十里 今不可考矣 是日極熱 我東人士 初逢自燕還者 必問曰 君行第一壯觀何物也 第爲拈出其 第一壯觀而道之也 人則各以所見率口而對曰 遼東千里大野壯觀 曰旧遼東白塔壯觀 曰沿路市舖壯觀 曰薊 門烟樹壯觀 曰蘆溝橋壯觀 曰山海關壯觀 曰角山寺壯觀 曰望海亭壯觀 曰祖家牌樓壯觀 曰皇京琉璃廠壯觀 曰通州舟楫壯觀 曰錦州衛牧畜壯觀 曰西山樓臺壯觀 曰四天主堂壯觀 曰虎圈象房壯觀 曰南海子壯觀 曰東 岳廟壯觀 曰北鎭廟壯觀 紛紛然指不可勝屈 上士則愀然變色 易容而言曰 都無可觀 何謂都無可觀 皇帝也薙 髮 將相公卿百執事也薙髮 士庶人也薙髮 雖功德侔殷周 富强邁秦漢 未有薙髮之天子 雖有陸隴其李光地之 學問 魏禧汪琬王士徵之文章 顧炎武周彝尊之博識 一薙髮則胡虜也 胡虜則犬羊也 吾於犬羊也何觀焉■ 此 則第一等義理也 中士則曰城郭長城之餘也 宮室阿房之遺也 士庶則魏晉之浮華也 風俗則隋煬之侈靡也 神州 陸沉則山川變爲腥羶之鄕 聖緖湮晦 則言語化爲侏亻离之俗 何足觀也 誠得十萬之衆 長驅入關 掃淸函夏 然後壯觀可論 此善讀春秋者也 一部春秋 乃尊華攘夷之書 我東服事皇明二百餘年 忠誠剴摯 雖稱屬國 無異 內服 壬辰倭奴之亂 神宗皇帝提天下之兵以救之 東民之頂踵毛髮 莫非再造之恩 丙子淸兵之來也 莊烈皇帝 聞我東被兵 急命總兵陳洪範 調各鎭舟師以赴援 洪範奏官兵出海 而山東巡撫顔繼祖 奏屬國失守 江華已破 帝以繼祖不能協圖匡救 切責之 天子內不能救福楚襄唐之急 而外切屬國之憂 其救焚拯溺之意 有加於骨肉之 邦也 及四海値天崩地坼之運 薙天下之髮而盡胡之 一隅海東雖免斯辱 其爲中國復讐刷耻之心 豈可一日而忘 之哉 我東士大夫之爲春秋尊攘之論者 磊落相望 百年如一日 可謂盛矣 然而尊周自尊周也 夷狄自夷狄也 中 華之城郭宮室人民 固自在也 正德利用厚生之具 固自如也 崔盧王謝之氏族固不廢也 周張程朱之學問 固未 泯也 三代以降聖帝明王漢唐宋明之良法美制 固知其可利而足以久享 則所謂胡虜者 至於奪而有之 爲天下者 苟有利於民而厚於國 雖其法之或出於胡虜而聖人 固將取而則之 而況三代以降聖帝明王漢唐宋明固有之故常 哉 聖人之作春秋 固爲尊周而攘夷也 然未聞憤夷狄之猾夏 並與中華可尊之實而攘之也 故今之人欲攘夷也 莫如盡學中華之遺法 先變我俗之魯鈍 自耕蠶 以至通工惠商 莫不學焉 人十己百 先利吾民 使吾民制梃 而 足以撻彼之堅甲利兵 然後謂中國無可觀可也 余下士也 曰壯觀在瓦礫 曰壯觀在糞壤 夫斷瓦 天下之棄物也 然而民舍繚垣肩以上 更以斷瓦 兩兩相配 爲波濤之紋 四合而成連環之形 四背而成古魯錢 嵌空玲瓏 外內交

	映 不棄斷瓦 而天下之文章斯在矣 碎礫 天下之棄物也 然而民家門庭 貧不能鋪甎 則聚諸色琉璃碎瓦及水邊小礫之磨圓者 錯成花樹鳥獸之形 以禦泥淖 不棄碎礫而天下之畫圖斯在矣 糞溷至穢之物也 爲其糞田也 則惜之如金 道無遺灰拾馬矢者 捧畚而隨尾 積庤方正 或八角或六楞 或爲樓臺之形 觀乎糞壤 而天下之制度斯立矣 故曰瓦礫糞壤 都是壯觀 不必城池宮室樓臺市鋪寺觀牧畜原野之曠漠 烟樹之奇幻 然後爲壯觀也 旧廣寧城 在醫巫閭山下 前臨大河野 引河爲濠 雙塔浮空 未及廣寧城數里 有一座大廟堂 新塗金碧 眼目閃爍 廣寧東門外 橋邊兩頭立蚣蝮 雄特奇巧 入兩重門 穿過市鋪 其繁華不減遼東 寧遠伯李成樑牌樓 在城北 或云廣寧 箕子國 古有箕子冠(曰+于)塑像 嘉靖間 燬於兵 城兩重 而內城完外城多頹 城裏人 家家出看 十百爲群 圍繞馬首殆不能行 城外關廟壯麗 伯仲遼陽 廟門外戲臺高深華侈 方群聚演劇 而行忙不得入觀明 天啓中王化貞爲李永芳所瞞 其驍將孫得功迎敵入城 廣寧失而天下大勢已去矣 **北鎭廟記** ②-1北鎭廟 在醫巫閭山下 背後千峰萬壑 如列劍戟 如展屛障 前臨大野 右環滄海 廣寧城撫在膝下 萬戶浮烟繚青一對 層塔迥白 測其地形平坡 乍成數丈圓阜 而俯仰天地 無所畔岸 日月出沒 風雲變化 皆在其中 東面而視 尺吳寸齊 可數掌紋 而但吾目力有窮耳 ②-2廟貌雄深魁傑 ②-3北方玄冥帝君 並其從官神像 皆袞冕佩玉奉圭 嚴威儼懿 香鼎高六尺餘 雕刻神姦鬼恠 青翠入骨 朱斑成芝 前置漆 大可容十石 漆盈其中 爲四炷晝夜長燎 山西行賈昨施五石漆云 舜封十有二山 以醫巫閭爲幽州之鎭 夏商周秦皆因之 禮視嶽瀆 雖未知廟刱自何代 而唐開元時 封廣寧公 遼金時始加王號 元大德中 封貞德廣寧王 皇明洪武初 改封止稱北鎭醫巫山之神 歲時降香祝 有天子姓諱 國有大典 遣官告祭 今淸尙因旧制而自以肇基東北 故崇奉之典 尤有加焉 或云雍正皇帝爲諸王時 奉勅降香 旣祭之夕 宿齋廬 夢一神人手予帝一大珠 珠化爲日 歸卽登大位 則大修廟宇以報神賜 ②-4廟門前有五門牌樓 純石架 起棟椽甍檐 不資一木 高四五丈 結構之工 鏤刻之巧 殆非人力所及 樓左右石獅子 高二丈 自廟門設白石層階 門左有寺 ②-5庭有兩碑 一曰萬壽禪林 一曰萬古流芳 寺坐五大金佛 寺右入一門 左鼓樓右鍾樓 兩樓之間 又設三門 前立三碑 皆黃瓦閣 二碑康熙皇帝御撰御書 一碑雍正皇帝御撰御書 正殿碧琉璃瓦 殿內北壁題鬱葱佳氣 雍正御筆 階上東西 對設石爐 高各丈餘 東西翼設廊廡數百間 殿後有空殿 制如前殿 金碧璀璨 象說虛無 後又有一殿 制如前殿 有二塑像 冕旒玉笏曰文昌星君 鳳冠珠帶曰玉妃娘 娘左右兩童子侍立 扁曰乾始靈區 今皇帝御筆 自外門層階 繚以白石之闌 石理瑩膩似玉非玉 刻以螭蛟 圍繞翼廡階墄 至于前殿 自前殿連延曲折 至于最後殿 望之皓然 一塵不動 殿前後 對列歷代穹碑簇立如葱畦 所載祭文 皆爲國祈祥之詞也 宋延祐碑最久 ②-6出西角門 有數丈蒼壁刻曰補天石 明巡撫張學顏筆 又離一間 刻翠屛石 廟中行宮 雖不如盛京 而去歲皇帝行瀋陽時 新修所經離宮別館 金碧眩眼 不可久居 出東角門 而行四五百步 有大石 穹窿如龜 曝刻曰呂公石 又曰會仙亭 醫巫閭扶輿磅礴之勢 一擧目而盡得之 百忙中 忽有一間小亭 倚在巖下 可謂大滑稽矣 土階三等 茅茨不剪 蕭灑幽敻 怡然心樂 遂相與少坐 卞君曰 譬如監司巡省郡邑 朝夕供張 無非山珍海錯 腸腐胃薰 厭飫嘔逆 偶値一器野蔬 欣然接味 余笑曰 此眞醫者之言爾 趙君曰 每於紅粉隊中 莫卞媸威 逢村畦野扉 荊釵布裙 則心目開霽 余曰 此好色者之言也 設如君等言 今此土階茅茨 導天子兩種眼胃爾 還坐廊廡下 守廟 有道士三人 以三柄扇三卷白紙三丸淸心元爲幣 道士皆喜 庭前桃子方熟 道士爲摘一盤以饋 衆隷爭趍桃樹下 披枝亂橘 余呵禁莫能止 道士曰 何必費氣 飽則自止 又謂衆隷曰 任君橘取 莫傷枝 留待明年再來時 余問道士姓名曰李鵬雲 號逍遙館 又稱餐霞道人 廟庭有半枯古松 皇帝甲戌東巡時 有詠松詩 又手畫 並刻置巖間12)
杏溪雜錄 六 避暑錄	②-7北鎭廟庭古松 皇帝自畫刻烏石坎 置巖腹 巖高僅丈餘 明時名翠雲屛 今皇帝又號補天石 題詩畫傍曰 鎭廟門西似盖松 半存枯幹半籠葱 凝神如見抱朴子 圖貌慙非陳所翁 立下忽疑晴與雨 現前可悟色兮空 何當六月其根坐 讀疏仡聽謖謖風 署乾隆宸翰 ③甲戌 東巡親祀北鎭 禮成 周覽廟中 有古松已枯其半 槎枒如鐵石東榦鬱然蒼翠 奇致夭矯 因立樹下 寫爲是圖 九月廿四 御筆印 天地爲師 皇帝書畫俱工 ④石傍又有三韓人金鼐詩 時登醫巫閭山頭 雲舍滄桑望裏收 石髮巖衣嫌跡擾 鳥鳴蟬噪帶人幽 凌空樹古龍飛去 傍地花新鳳壘留 北斗惟神天一柱 億年萬紀庇皇秋 署和公 筆力甚拙 或謂東人金鼐 而殊不識遼東人 亦稱三韓也 顧亭林斥華人用夷號 然遼左多效之者 且其詩雖非工 亦非東人口氣13)

11) 연민문고본,『연행음청(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32~34쪽.
12) 연민문고본,『연행음청(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10쪽.
13) 연민문고본,『행계잡록(6)』,『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347~348쪽.

〈표 2〉에서 『연행음청(곤)』에 기록된 ‘7월 15일’의 내용은 의미상 ㈎~㈑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단락과 ㈑단락은 ①과 ⑤에서 7월 15일에 朴來源, 卞觀海, 趙達東 등과 함께 30리 떨어진 安浦에 있는 北鎭廟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②-1에서 ②-6까지 북진묘를 구경한 뒤에 달빛을 타고 20리를 더 오고 가서 新廣嶺에서 숙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연행음청(곤)』의 ①“十五”에서 “鎭廟”까지 28자는 『연행음청록』(4)에서 ①“四年”부터 “鎭廟”까지 50자에 걸쳐 연도와 달 수, 간지, 출발 시기와 장소 등이 추가되고, 관명과 자호가 이름으로 바뀌거나 경유지가 추가되었다. 『연행음청(곤)』의 ⑤“往返幾迂二十里, 乘月還宿新廣寧.”는 『연행음청록』(4)에서 ⑤“乘月”부터 “十里”까지 25자에 걸쳐 북진묘에서 신광령까지 가는 40리와 총 거리인 90리가 추가되었다.

『연행음청(곤)』의 내용이 『연행음청록』(4)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②-1에서 ②-6까지이다. 『연행음청(곤)』의 ②-1“廟在醫巫閭山下”와 ②-2“廟宇壯麗”는 『연행음청록』(4)에서 ②-1“北鎭廟, 在醫巫閭山下.”와 ②-2“廟貌雄深魁傑.”로 바뀌었다. 『연행음청(곤)』의 ②-3“臺榭亭閣, 窮極奢華.”는 『연행음청록』(4)에서 ②-3“北方”에서 “長燎”까지 62자에 걸쳐 臺榭亭閣의 화려함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연행음청(곤)』의 ②-4“牌樓高可五六丈, 純石琱鏤.”는 『연행음청록』(4)에서 ②-4“廟門”부터 “所及”까지 38자에 걸쳐 牌樓의 높이와 조각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다. 『연행음청(곤)』의 ②-5“五門庭有嘉靖萬曆間七碑”는 연행음청록』(4)에서 ②-5“庭有”부터 “御書”까지 69자에 걸쳐 가정과 만력 사이에 세워진 7개의 비석 중에서 2개의 비석과 강희황제와 옹정황제가 찬술한 3개의 비석 등 5개가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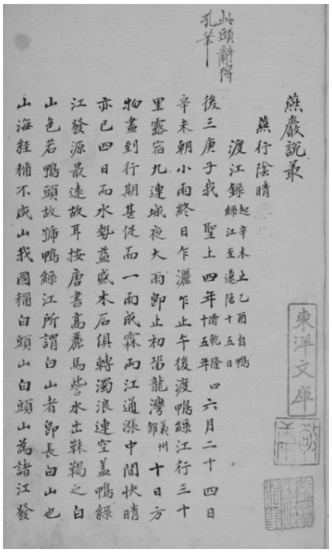
『연행음청(곤)』에 수록된 ②-7과 ③, ④의 내용은 『행계잡록(6)』에 수록된 「피서록」을 저술하는 데 활용되었다. 먼저 『연행음청(곤)』의 ②-7“皇帝”부터 “宸翰”까지 83자는 건륭황제가 지은 시 전문을 쓴 것인데, 『행계잡록(6)』의 「피서록」에는 ②-7“北鎭”부터 “乾隆宸翰.”까지 102자에 걸쳐 북진묘에 있는 바위의 이름을 補天石이라고 부르게 된 사연과 함께 옹정황제의 시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연행음청(곤)』의 ③“甲戌”부터 “爲師”까지 56자에는 갑술년에 황제가 북진묘에서 친히 제사하고 보천석에 그림을 그려놓고 글씨를 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행계잡록(6)』의 「피서록」에는 ③“甲戌”부터 “俱工”까지 61자에 걸쳐 앞부분은 모두 같고 뒷부분의 “【九月廿四御筆】, 引曰【天地爲師】”이 “九月廿四 御筆印 天地爲師 皇帝書畫俱工.”으로 바뀌어 있다. 다음 『연행음청(곤)』의 ④“又有”부터 “立謄”까지 77자에는 우리나라 金鼐가 지은 시 전문이 씌어 있는데, 『행계잡록(6)』의 「피서록」에는 ④“石傍”부터 “口氣”까지 119자에 걸쳐 요동 사람을 삼한이라고 호칭한 사례나 시의 작법으로 보아 김내의 시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박지원은 『연행음청(곤)』에서 7월 15일 신광녕을 출발하여 7월 23일 산해관에 이르는 여정을 간략하게 기록하였고, 이후 그는 이 책에 적어놓은 내용을 활용하여 『연행음청록』(4)의 「광녕잡지」와 『행계잡록(6)』의 「피서록」 등을 쓴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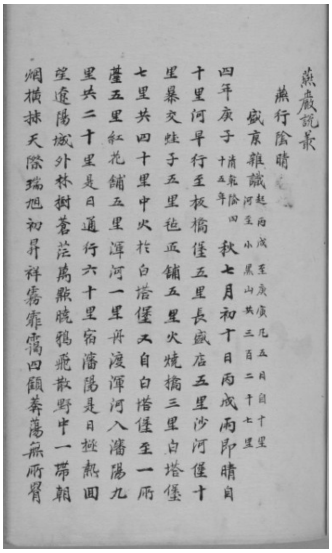
Ⅲ. 『연행음청』 이본과의 관계

일본 동양문고에는 중국 사행 기록 3종을 합철하여 표제를 '연휘'라고 적어놓은 필사본이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은 총 20책으로 김창업의 연행록인 『가재설총』 6책, 홍대용의 연행록인 『담헌설총』 6책, 박지원의 연행록인 『연암설총』 8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연암설총』 8책은 『연행음청(1)(2)』 2책과 『열하일기(1)(2)(3)(4)(5)(6)』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행음청(1)』은 『열하일기』 중 제1편 「도강록」과 제2편 「성경잡지」를 필사한 것이다. 표지에는 "燕彙 一三"이라는 표제 우측에 "燕巖錄 一/ 渡江錄" 등의 편명이 씌어 있다. 제1장에는 "燕巖說叢目錄/ 燕行陰晴/ 渡江錄"이 씌어 있다. 제2장 제1행과 제2행에는 "燕巖說叢"과 "燕行陰晴"이 씌어 있고, 제3행에는 "渡江錄"이라는 편명과 "辛未"부터 시작되는 주석이 씌어 있다(〈사진 10〉 참고). 이 책의 제47장에는 "燕巖說叢目錄/ 燕行陰晴/ 盛京雜識" 등의 표제가 씌어 있다. 제48장 제1행과 제2행에는 "燕巖說叢"과 "燕行陰晴"이 씌어 있고, 제3행에는 "盛京雜識"라는 편명과 "辛未"부터 시작되는 주석이 씌어 있다(〈사진 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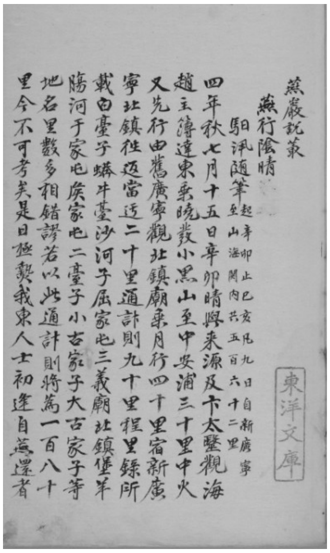
『연행음청(2)』는 『열하일기』 중 제3편 「일신수필」과 제4편 「관내정사」를 필사한 것이다. 표지에는 "燕彙 一四"이라고 쓴 표제 우측에 "燕巖錄 一/ 馹汎隨筆" 등의 편명이 씌어 있다. 제1장에는 "燕巖說叢目錄/ 燕行陰晴/ 馹汎隨筆" 등의 표제가 씌어 있다. 제2장 제1행과 제2행에는 "燕巖說叢"과 "燕行陰晴"이 씌어 있고, 제3행에는 "馹汎隨筆"이라는 편명과 "辛未"부터 시작되는 주석이 씌어 있다(〈사진 12〉 참고). 이 자료 이외로



〈사진 10〉『연암설총(1)』
『연행음청』 장2 「도강록」
(동양문고본)



〈사진 11〉『연암설총(1)』
『연행음청』 장48 「성경잡지」
(동양문고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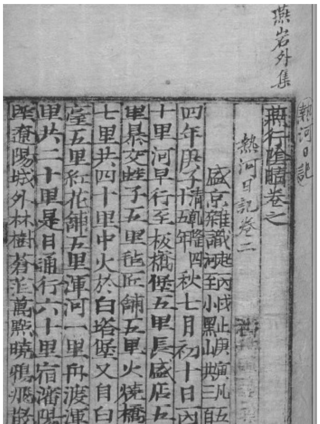
〈사진 12〉『연암설총(2)』
『연행음청』 장2 「일신수필」
(동양문고본)

전하는『연휘』소재「연암설총」은 모두 ‘『연암집』「외집」 계열’ 필사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다.[14] 이로 보아 이 자료는 누군가가 박지원이『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를 활용하여 쓴 것을 필사하면서 제1편「도강록」, 제2편「성경잡지」, 제3편「일신수필」, 제4편「관내정사」의 표제를『연행음청』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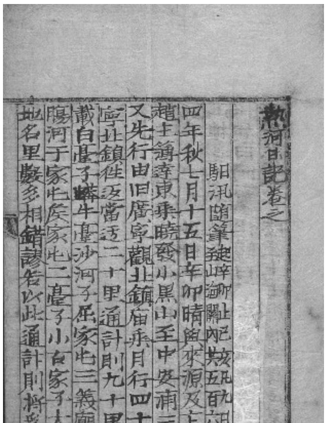
앞서 살폈듯이 연민문고에는『행계잡록(1)(2)(3)(5)(6)』5책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행계잡록(1)』은『열하일기』중 제1편「도강록」과 제2편「성경잡지」를 필사한 것이다. 표지에는 “杏溪雜錄 一”이라는 표제 우측에 “渡江錄 一/ 盛京雜識 二”라고 씌어 있다. 제2장에는 목록 없이 바로「渡江錄序」가 씌어 있다. 제3장 제1행에는 “熱河日記卷之”라고 씌어 있는데, 그중 “熱河日記” 네 자는 “燕行陰晴”을 지운 후에 덧쓴 것이다. 제2행에는 “熱河日記卷一”이라고 씌어 있고, 제3행에는 “渡江錄”이라는 편명과 “辛未”부터 시작하는 주석이 씌어 있다(〈사진 13〉 참고). 이 책의 제52장 제1행에는 “熱河日記目錄”이 씌어 있고 제2행부터 “盛京雜識/ 盛京伽籃記” 등의 표제가 씌어 있다. 제53장 제1행에는 “熱河日記卷之”라고 씌어 있는데, 그중 “熱河日記” 네 자는 “燕行陰晴”을 지우고 오른쪽에 써 놓은 것이다. 제2행에는 “熱河日記卷二”라고 씌어 있고, 제3행에는 “盛京雜識”라는 편명과 “起丙戌”부터 시작되는 주석이 씌어 있다(〈사진 14〉 참고).

『행계잡록(2)』는『열하일기』중 제3편「일신수필」과 제4편「관내정사」를 필사한 것이다. 표지에는 “杏溪雜錄 二”이라는 표제 우측에 “馹汛隨筆 三/ 關內程史 四”라고 씌어 있다. 제2장 제1행에는 “熱河日記卷之”라

〈사진 13〉『행계잡록(1)』
『연행음청』장3「도강록」
(연민문고본)



〈사진 14〉『행계잡록(1)』
『연행음청』장53「성경잡지」
(연민문고본)



〈사진 15〉『행계잡록(2)』
『연행음청』장2「일신수필」
(연민문고본)

14) 노경희,「『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규장각』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52~53쪽.

고 씌어 있는데, 그중 "熱河日記" 네 자는 "燕行陰晴"을 지운 후에 덧쓴 것이다. 제3행에는 "馹汛隨筆"이라는 편명과 "起辛未"부터 시작되는 주석이 씌어 있다(〈사진 15〉 참고). 『행계잡록』(2) 「일신수필」은 초기 필사본인 一齋本이나 충남대학교 소장본 『열하일기』에도 있는 「일신수필」의 서문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15] 이로 보아 이 자료는 박지원이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를 저본으로 하여 교정한 후 표제를 "연행음청"이라고 써놓았다가, 이후 제1편 「도강록」, 제2편 「성경잡지」, 제3편 「일신수필」, 제4편 「관내정사」의 표제를 "열하일기"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내외에 소장된 『열하일기』 이본들의 계통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열하일기』의 초기 이본을 필사한 『연암설총(1)(2)』·『행계잡록(1)(2)』와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에 수록된 「성경잡지」와 「일신수필」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연암설총(1)(2)』·『행계잡록(1)(2)』와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의 원문을 대조하여 선후 관계와 교정 양상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연행음청』 이본과 『연행음청기』(3)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행계잡록(1)』에 수록된 「성경잡지」의 원문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

〈표 3〉 『연행음청기』(3)·『연암설총(1)』·『행계잡록(1)』 「성경잡지」의 원문 비교

	燕行陰晴錄 卷之三	燕巖說叢 一	杏溪雜錄 一
七月 十日	貨寶財①賂 充②沕其中	貨寶財①賄 充②仞其中	貨寶財①賄 充②牣其中
	正是守直③的章④京	正是守直(③)章④景	正是守直(③)章④京
	無人阻⑤搪	無人阻⑤搪	無人阻⑤擋
	疊榭⑥回廊[16]	疊榭⑥回廊[17]	疊榭⑥廻廊[18]
商樓筆談	使臣時有⑦昵近⑧耿光	使臣時有⑦昵近⑧耿光	使臣時有⑦■近⑧■光
	未保⑨朝天	未保⑨朝天	未保⑨參班
	⑩乖龍最毒	⑩乖龍最毒	⑩火龍最毒
	墮了一⑪乖龍	墮了一⑪乖龍	墮了⑪一条龍身
	不雨⑫常電	不雨⑫常電	不雨⑫恒電
	長纔三四⑬丈[19]	長纔三四⑬丈[20]	長纔三四⑬尺[21]

15) 김명호, 「『연행음청』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13~17쪽.
16)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3~13쪽.
17) 동양문고본, 『연휘(13)』, 『연암설총(1)』, 일본 동양문고, 97~109쪽.
18)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22~145쪽.
19)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8~38쪽.
20) 동양문고본, 『연휘(13)』, 『연암설총(1)』, 일본 동양문고, 130~1143쪽.
21)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66~180쪽.

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연암설총(1)』[22]과 『행계잡록(1)』[23]에는 『연행음청기』(3)에는 빠져 있는 「山川記略」의 원문 409자가 수록된 것을 들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연암설총(1)』과 『행계잡록(1)』의 원문은 『연행음청기』(3)에 비해 개작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행계잡록(1)』에 수록된 「성경잡지」의 원문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7월 10일' 조목의 원문이 세 이본에서 서로 다른 부분은 여섯 곳이다. 먼저 『연행음청기』(3)과 『행계잡록(1)』의 ④京이 『연암설총(1)』에는 ④景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은 관직명을 의미하는 "章京"의 京으로 景은 오자이다. 『연행음청기』(3)의 ②沕은 『행계잡록(1)』과 『연암설총(1)』에서 ②物과 ②仞으로 되어 있는데, 物과 仞은 모두 '차다'는 뜻으로 쓰이므로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연행음청기』(3)의 ③的은 『행계잡록(1)』과 『연암설총(1)』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두 이본에서 구어체인 的을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행음청기』(3)의 ①賂, ⑤搪, ⑥回은 『연암설총(1)』에는 동일하나 『행계잡록(1)』에는 이곳이 ①賄, ⑤擋, ⑥廻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세 곳은 『연암설총(1)』에서는 『연행음청기』(3)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쓰고, 이후 『행계잡록(1)』에서 ①賂, ⑤搪, ⑥回로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에서 '상루필담' 조목의 원문에서 세 이본이 서로 다른 부분은 일곱 곳이다. 이 일곱 곳은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은 원문이 모두 같으나 『행계잡록(1)』의 원문은 모두 다르다.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의 ⑦昵과 ⑧耿은 『행계잡록(1)』에는 모두 먹으로 지워져 있다[■ 표기].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의 ⑨"朝天"과 ⑩乖는 『행계잡록(1)』에는 ⑨"參班"과 ⑩火로 되어 있다.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의 ⑪"乖龍"은 『행계잡록(1)』에는 ⑪"一条龍身"으로 바뀌어 있다.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의 ⑫常과 ⑬尺은 『행계잡록(1)』에는 ⑫恒과 ⑬尺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보아 이 일곱 곳은 모두 『연암설총(1)』에서는 『연행음청기』(3)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쓰고, 이후 『행계잡록(1)』에서 일곱 곳을 모두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행음청기』(3)·『연암설총(1)』·『행계잡록(1)』의 선후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행음청기』(3) 「성경잡지」	⇨	『연암설총(1)』 「성경잡지」	⇨	『행계잡록(1)』 「성경잡지」

〈그림 1〉『연행음청기』(3)·『연암설총(1)』·『행계잡록(1)』의 선후 관계

다음으로 『연암설총(1)』과 『행계잡록(1)』의 원문이 개작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교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행계잡록(1)』에 수록된 「성경잡지」 '7월 10일' 조목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2) 동양문고본, 『연휘(13)』, 『연암설총(1)』, 일본 동양문고, 154~156쪽.
23)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92~194쪽.

〈표 4〉『연행음청기』(3) · 『연암설총(1)』 · 『행계잡록(1)』의 ‘7월 10일’ 조목의 원문 비교

燕行陰晴錄 卷之三	①乾隆四十五年庚子 秋七月初十日丙戌 ②小雨卽晴 自十里河 ③曉行四十里 至白塔鋪 中火 又行二十里 舟渡渾河入瀋陽 是日極熱 回望遼陽城外 林樹蒼茫 萬點曉鴉 飛散野中 一帶朝煙 橫抹天際 瑞旭初昇 祥霧霏靄 四顧漭蕩 無所罣礙 噫 此英雄百戰之地也 所謂虎步龍驤 高下在心 (④) 蒙古車數千乘 載甎入瀋陽 每車引三牛 牛多白色 間有青牛 暑天引重 牛⑤熱鼻⑥多流血 蒙古⑦人皆⑧壯健鼻高⑨眼深 猙獰鷙悍 殊不類人 且其衣帽⑩鬼監魀襤褸 塵垢滿面 (⑪)猶不脫襪 ⑫行走見我隸之赤脚 相視指點我隸 時以鞭梢挑脫其帽 佯作奪取之狀 或擲棄道左 或毬踢爲戲 亦不怒必爲笑容 伸手丐還 或從後脫帽 走入田中 蒙古迫逐我隸 急轉身抱腰交股 以足打足 翻置地上 以塵納口 群胡齊笑 方纔靜禮 得起着帽振衣 不更逐角勝□□□□行逢一車共載七人 皆衣⑬赭紅 以鐵索籠肩絡背 交鎖於項 復以一端鎖手 一端鎖脚 錦州衛盜賊 減死戍配黑龍江云[24]
燕巖說叢 一	①四年庚子【淸乾隆四十五年】秋七月初十日丙戌 (②)雨卽晴 自十里河 ③早行至板橋堡五里 長盛店五里 沙河堡十里 暴交蛙子五里 毡匠舖五里 火燒橋三里 白塔堡七里 共四十里 中火於白塔堡 又自白塔堡至一所臺五里 紅火舖五里 渾河一里 舟渡渾河 入瀋陽九里 共二十里 是日通行六十里 宿瀋陽 是日極熱 回望遼陽城外 林樹蒼茫 萬點曉鴉 飛散野中 一帶朝煙 橫抹天際 瑞旭初昇 祥霧霏靄 四顧漭蕩 無所罣礙 噫 此英雄百戰之地也 所謂虎步龍驤 高下在心 ④然天下安危 常係遼野 遼野安則海內風塵不動 遼野一擾 則天下金鼓互鳴 何也 誠以平原曠野 一望千里 守之則難爲力 棄之則胡虜長驅 曾無門庭之限 此所以爲中國必爭之地 而雖殫天下之力 守之 然後天下可安也 今其天下所以百年無事者 豈謂德教政術 遠過前代哉 瀋陽 乃其始興之地 則東接寧古塔 北控熱河 南撫朝鮮 西向而天下不敢動 所以壯其根本之術 非歷代所比故也 入遼以來 桑麻翳菀 鷄狗相聞 百年無事 不得不爲皇帝一攢眉矣 蒙古車數千乘 載甎入瀋陽 每車引三牛 牛多白色 間有青牛 暑天引重 牛(⑤)鼻(⑥)流血 蒙古(⑦)皆(⑧)鼻高⑨目深 猙獰鷙悍 殊不類人 且其衣帽(⑩) 襤褸 塵垢滿面 ⑪而猶不脫襪 ⑫見我隸之赤脚行走 意似恠之 我國刷驅 歲見蒙古 習其性⑫-1靜 常與之狎行 以鞭末挑其帽 棄擲道傍 或毬踢爲戲 蒙古笑而不怒 但張其兩手 巽語丐還 刷驅或從後脫帽 走入田中 佯爲蒙古所逐 急轉身抱蒙古腰 以足打足 蒙古無不顚翻者 遂騎其胸 以塵納口 群胡停車齊笑 被翻者亦笑而起 拭嘴着帽 不復角勝 行逢一車共載七人 皆衣(⑬)紅 以鐵索籠肩絡背 交鎖於項 復以一端鎖手 一端鎖脚 錦州衛盜賊 減死戍配黑龍江云[25]
杏溪雜錄 一	⑫-1情, 이외 상동[26]

〈표 4〉에서 ①은 연암이 연행한 때의 연호와 연도를 표기한 것이다. 『연행음청기』(3)에는 ①“乾隆四十五年庚子”라고 하여 연호와 연도가 함께 씌어 있으나, 『연암설총(1)』에는 ①“四年庚子【淸乾隆四十五年】”라고 하여 본문에 연도만 쓰고 연호는 주석으로 달았다. 『연행음청기』(3)에 있는 ②小, ⑤熱, ⑥多, ⑦人, ⑧壯, ⑩“鬼監魀”, ⑬赭 등은 『연암설총(1)』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는데, 이는 『연행음청기』(3)을 교정해 『연암설총(1)』에 옮기면서 이 일곱 개의 글자와 단어를 삭제하여 문장을 간략하게 축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⑪而는 『연행음청기』(3)에는 없는 글자로 『연암설총(1)』에서 추가되었는데, 이는 “塵垢滿面”와 “猶不脫襪”의 의미가 서로 이어진다고 보고 『연암설총(1)』에서 而를 추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행음청기』(3)에서의 ⑨眼은 『연암설총(1)』에는 ⑨目으로 교정되었는데, 이는 의미상으로 보아 眼보다는 目이 낫다고 보고 目으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24)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3쪽.
25) 동양문고본, 『연휘(13)』, 『연암설총(1)』, 일본 동양문고, 1쪽.
26)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29~132쪽.

〈표 4〉에서 가장 큰 폭으로 교정이 이루어진 곳은 ③, ④, ⑫이다. ③은 7월 10일에 이동한 장소와 거리, 날씨를 기록한 것이다. 『연행음청기』(3)에는 ③"曉行"부터 "瀋陽"까지 23자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연암설총(1)』에서는 ③"早行"부터 "瀋陽"까지 92자에 걸쳐 그 내용이 큰 폭으로 추가되었다. 이곳에 추가된 내용은 『연행음청기』(3) 제1장의 두주에 씌어 있는 "自十"부터 "九里"까지 63자를 일부 수정해 옮겨놓은 것이다(〈사진 5〉 참고). 특히 『연암설총(1)』에는 『연행음청기』(3)에는 없는 ④"然天"부터 "眉矣"까지 180자가 추가되어 있다. 이곳에는 천하의 안위가 요동 벌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백 년 동안 전쟁이 없는 이유는 청나라가 요동을 견고하게 지킨 덕택이라는 내용이 씌어 있다. 또한 『연행음청기』(3)의 ⑫"行走"부터 "□□"까지 102자는 『연암설총(1)』에서 ⑫"見我"부터 "角勝"까지 123자에 걸쳐 몽고인의 성정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말몰이꾼들이 버릇없이 장난을 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연암설총(1)』에서 ⑫-1靜은 『행계잡록(1)』에는 ⑫-1情으로 되어 있는데, 글의 내용으로 보아 '精'은 '情'의 오자이다. 이를 제외하고 『행계잡록(1)』의 원문은 『연암설총(1)』의 원문과 모두 같다.

마지막으로 『연행음청기』(3)과 『연암설총(1)』·『행계잡록(1)』에 수록된 「성경잡지」 '舊遼東記' 원문의 일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연행음청기』(3)·『연암설총(1)』·『행계잡록(1)』의 '舊遼東記' 원문 비교

燕行陰晴記 卷之三	①遼東故衛滿朝鮮地 漢置四郡 後更置二都督府 元魏時屬高句麗 隋唐時數被伐 高宗時入中國 遼稱南京 金稱東京 元置行省 皇明置都司 今廢移城 謂縣曰遼陽 屬奉天府 而此稱舊遼東城 城周二十里熊廷弼所築也 城故卑狹 廷弼聞敵騎入境 令夷城 清人恠之 不敢②近及 諜知③築城 引④騎至城下新城峨峨 一夜而⑤壘 後廷弼去而遼陷 清⑥太宗忿其城堅難拔⑦令毁其城 以方興得勝之兵 十日而毁猶未盡云 (⑧) 廷弼之不拔廣寧也 三司王紀鄒元標周應秋勘廷弼曰 廷弼才識氣魄 睥睨一世 往歲鎭遼西而遼存 去遼而遼亡 ⑨其料事之智 遠過王化貞 獨其驕愎之性 牢不可破 今日一疏 明日一揭 ⑩答將曰 勝固以成吾名 敗可以驗吾言 比之楊鎬 更多一逃 比之袁應泰 反欠一死 若誅化貞而寬廷弼 則罪同罰異也 今其土壁周遭 而甎痕猶存 誦當日三司之勘 足可以想見其爲人⑪矣 (⑫) 引太子河爲濠濠中有數三漁艇 城下釣者數十人 皆美衣服 貌似遊閒公子 俱城裏市舖人 (⑬)一哄持竿而來 向余⑭笑語 余畫地爲字 皆熟視笑而去27)
燕巖說叢 一	①遼東舊城 在漢襄平遼陽二縣地 秦曰遼東 後入衛滿朝鮮 漢末爲公孫度所據 隋唐時 屬高勾麗 契丹稱南京 金稱東京 元置行省 皇明置定遼衛 今陞爲遼陽州 移城距二十里 爲新遼陽 此廢稱旧遼東 城周二十里 或謂熊廷弼所築也 城故卑狹 廷弼聞敵騎入境 令夷城 清人恠之 不敢②逼及 諜知③改築引④兵至城下 新城峨峨 一夜而⑤成 後廷弼去而遼陷 清⑥人忿其城堅難拔(⑦)毁其城 以方興得勝之兵 十日而毁 猶未盡云 ⑧皇明天啓元年三月 清人旣得瀋 又移兵向遼 經略袁應泰方議三路出師 以復撫順 未行而聞虜陷瀋陽 又將向遼 遂開太子河 注水於壕 環兵登埤 清人陷瀋五日 至遼陽城下 奴兒哈赤者 所謂清太祖也 自統左翼兵先至 皇明摠兵李懷信等 率兵五萬出城五里而營 奴兒哈赤 以左翼四旗 擊其左 清太宗我東所謂汗 其名曰洪台時【我國丙丁錄 雜載紅打時 或稱洪他詩 以其音似而各載 如英阿兒臺曰龍骨大 馬伏塔曰馬夫大 是也】引精銳請戰 奴兒哈赤不許 洪台時堅意行 遂留二紅旗 伏城傍覘視 奴兒哈赤 遣正黃旗鑲黃旗 助洪台時 衝明營之左 四旗兵繼至 天兵大亂 洪台時乘勝追擊六十里 至鞍山 方其戰時 天兵自遼陽西門出 拔清人所留城傍二紅旗 伏起邀擊 天兵奔回入城自相蹂踐 摠兵賀世賢 副將戚金等 皆戰死 詰朝奴兒哈赤 率貝勒左四旗兵 掘城西閘口 以洩湖水 且令右四旗兵 塞城東進水口 自引右翼 布楯車堵列城邊 囊土運石以壅水 天兵步騎三萬出東門 列營相⑧-1距 清人方欲奪橋 會水口壅遏將涸 四旗前隊渡濠 大呼掩擊東門外天兵 方力戰 清紅甲二百白旗千 進

	擊天兵 死者⑧-2壕塹皆滿 奪武靖門橋 分擊守⑧-3壕天兵 城上發火器 聯綿不絶 淸人奮勇衝突 樹梯登城 遂奪西城一面 驅斬民衆 城中擾亂 是夜城內天兵 列炬拒戰 牛維曜等 縋城亂遁 翼朝 天兵復列楯大戰 淸四旗兵 亦登城 經略袁應泰 登城北鎭遠樓督戰 見城破 擧火焚樓而死 分守道何廷魁 率妻子投井死 監軍道崔儒秀自經 總兵朱萬良 副將梁仲善 參將王豸房承勳游擊李尙義張繩武 都司徐國全王宗盛 守備李廷幹等 皆戰死 生擒御史張銓不屈 奴兒哈赤 命賜死 以遂其志 洪台時惜銓欲生之 婉諭再三 終不可奪 不得已縊而葬之 皇帝於昨年己亥 爲全韻詩 詳載陷城始末 且曰 明臣之不降者 我祖宗尙加恩 而燕京君臣 漠不相關 功罪不明 欲其不亡得乎 按明史 廷弼之不拔廣寧也 三司王紀鄒元標周應秋劾廷弼曰 廷弼才識氣魄 睥睨一世 往歲鎭遼西而遼存 去遼而遼亡 (⑨) 獨其驕愎之性 牢不可破 今日一疏 明日一揭 (⑩) 比之楊鎬 更多一逃 比之袁應泰 反欠一死 若誅化貞而寬廷弼 則罪同罰異也 今其土壁周遭 而甎痕猶存 誦當日三司之劾 足可以想見其爲人(⑪) ⑫嗚呼 當皇明末運 用捨顚倒 功罪不明 其視熊廷弼袁崇煥之死 可謂自壞其長城矣 惡可免後代之譏哉 引太子河爲濠 濠中有數三漁艇 城下釣者數十人 皆美衣服 貌似遊閒公子 俱城裏市舖人 ⑬余巡濠爲觀 其設閘蓄洩之⑬-1法釣者一哄持竿而來 向余⑭閒語 余畫地爲字 皆熟視笑而去[28]
杏溪雜錄一	⑧-1拒, ⑧-2濠, ⑧-3濠, ⑬-1制, 이외 상동[29]

〈표 5〉에서 『연행음청기』(3)에는 빠져 있고 『연암설총(1)』에서 새로 추가된 내용은 ⑧, ⑫, ⑬ 등 모두 세 곳이다. 『연암설총(1)』의 ⑧“皇明”부터 “明史”까지 660자에는 청나라 태조인 누르하치가 요동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이 시간에 따라 씌어 있다. 또한 『연암설총(1)』의 ⑫“嗚呼‘부터 ”譏哉”까지 41자에는 명나라가 熊廷弼이나 袁崇煥과 같은 명장을 죽여 패망에 이르게 된 것을 꾸짖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고, 『연암설총(1)』의 ⑬“余巡”부터 “釣者”까지 14자에는 연암이 요동성에 갑문을 설치한 제도를 관찰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사실이 씌어 있다. 또한 『연행음청기』(3)의 원문이 『연암설총(1)』에서 삭제된 곳은 ⑦令, ⑨“其料事之智, 遠過王化貞.”, ⑩“答將曰: 勝固以成吾名, 敗可以驗吾言.”, ⑪矣 등 네 곳이다. 이 네 곳은 『연행음청기』(3)의 내용을 『연암설총(1)』과 『행계잡록(1)』에 옮기면서 문장의 구조나 의미상 불필요하다고 보고 모두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5〉에서 『연행음청기』(3)의 원문이 『연암설총(1)』에서 교정된 곳은 총 여섯 곳이다. 그중 가장 크게 교정된 곳은 요동 지역의 역대 명칭과 이름을 적어놓은 ①“遼東”부터 “或謂”까지 86자이다. 『연행음청기』(3)에는 앞부분이 “衛滿朝鮮” → “漢四郡” → “二都督府” → “魏時高句麗” → “唐高宗時入中國”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연암설총(1)』에는 앞부분이 “遼東舊城, 在漢襄平遼陽二縣地” → “秦曰遼東” → “後入衛滿朝鮮” → “漢末爲公孫度所據” → “隋唐時屬高勾麗”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연행음청기』(3)의 ②近, ③“築城”, ⑤畢, ⑥“太宗”, ⑭笑는 『연암설총(1)』에는 ②逼, ③“改築”, ④兵, ⑤成, ⑥人, ⑭閒로 교정되어 있다. 이 다섯 곳은 『연행음청기』(3)의 내용을 『연암설총(1)』에 옮기면서 의미상으로 더욱 적합한 뜻을 지닌 글자나 표현으로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암설총(1)』에서 ⑧-1距, ⑧-2壕, ⑧-3壕, ⑬-1法은 『행계잡록(1)』에는 ⑧-1拒, ⑧-2濠, ⑧-3濠, ⑬-1制로

27)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42~43쪽.
28) 동양문고본, 『연휘(13)』, 『연암설총(1)』, 일본 동양문고, 147~154쪽.
29)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186~191쪽.

되어 있다. 距는 의미상 拒의 오자이고, 壕는 같은 곳에서 “濠中有數三漁艇”라고 쓴 것으로 보아 濠의 오자이다. 法은 의미상 制가 낫다고 보고 制로 바꾼 것으로 생각된다. 이 네 곳을 제외하고 『행계잡록(1)』의 원문은 『연암설총(1)』의 원문과 모두 같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박지원은 『연행음청기』(3)의 원문을 교정하여 『행계잡록(1)』에 옮겨쓰면서 원문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개작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고친 것으로 생각된다.

2. 『연행음청』 이본과 『연행음청록』(4)

『연행음청록』(4)에 수록된 「일신수필」과 『연암설총(2)』·『행계잡록(2)』에 수록된 「일신수필」의 원문 또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연행음청록』(4)와 『연암설총(2)』·『행계잡록(2)』에 수록된 「일신수필」의 원문에서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연행음청록』(4)·『연암설총(2)』·『행계잡록(2)』「일신수필」의 원문 비교

	燕行陰晴錄 卷之四	燕巖說叢 二	杏溪雜錄 二
車制	有戎車役車水車(①) 千百其制 (②)(③) ④而載車乘車 莫不同軌	有戎車役車水車①砲車 千百其制 ②而今不可倉卒俱悉 然至於乘車載車尤係生民先務 不可不急講也 吾嘗與洪湛軒德保③朴楚亭在先④講車制車制 莫先於同軌	有戎車役車水車①砲車 千百其制 ②而今不可倉卒俱悉 然至於乘車載車尤係生民先務 不可不急講也 吾嘗與洪湛軒德保③李參奉聖載 ④講車制車制 莫先於同軌
	繅之出釜⑤去籰之頃[30]	繅之出釜⑤去籰之頃[31]	繅之出釜⑤入籰之頃[32]
七月 十六日	有⑥五六歲童子 頭戴一頂猩紅絲凉帽⑦兒	有⑥五六歲童子 頭戴一頂猩紅絲凉帽(⑦)	有⑥七八歲童子 頭戴一頂猩紅絲凉帽(⑦)
	兒屈指⑧恭對曰 該有⑨六⑩余問其姓名 ⑪兒對曰[33]	兒屈指(⑧)對曰 該有⑨六 (⑩) 問其姓名 (⑪)對曰[34]	兒屈指(⑧)對曰 該有⑨九 (⑩) 問其姓名 (⑪)對曰[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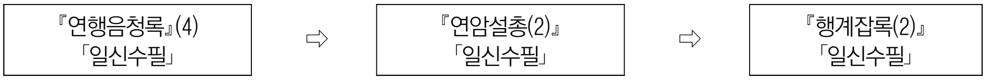
〈표 6〉에서 ‘車制’ 조목의 원문이 세 이본에서 서로 다른 부분은 다섯 곳이다. 『연행음청록』(4)에는 ①, ②의 원문이 없는데, 『연암설총(2)』와 『행계잡록(2)』에는 ①“砲車”, ②“而今”부터 “德保”까지 35자가 추가되어 있다. 『연행음청록』(4)의 ④“而載車乘車, 莫不同軌.”는 『연암설총(2)』와 『행계잡록(2)』에는 ④“講車制, 車

30) 연민문고본, 『연행음청록』(4),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10~19쪽.
31) 동양문고본, 『연휘(14)』, 『연암설총(2)』, 일본 동양문고, 14~26쪽.
32) 연민문고본, 『행계잡록(2)』,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35~248쪽.
33) 연민문고본, 『연행음청록』(4),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1~25쪽.
34) 동양문고본, 『연휘(14)』, 『연암설총(2)』, 일본 동양문고, 30~34쪽.
35) 연민문고본, 『행계잡록(2)』,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53~258쪽.

制, 莫先於同軌.”로 바뀌어 있다. 『연행음청록』(4)와 『연암설총(2)』의 ⑤去는 『행계잡록(2)』에는 ⑤入으로 바뀌어 있다. 특히 이곳에는 『연행음청록』(4)에 없는 ③의 원문이 『연암설총(2)』에는 ③“朴楚亭在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계잡록(2)』에는 ③“李參奉聖載”로 바뀌어 있는 것이 주목된다. 현전하는 『열하일기』 이본들은 모두 『행계잡록(2)』와 같이 “李參奉聖載”로 되어 있다. 朴在先은 朴齊家(1750~1805)를 가리키고, 李聖載는 李匡呂(1720~1783)로 성재는 그의 자이다. 위와 같이 『연암설총(2)』의 박제가를 『행계잡록(2)』에서 이성재로 바꾸어 놓은 것은 그가 순조 1년(1801)에 천주교에 대한 대대적 탄압이 있었던 때에 정치적 박해를 받았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36] 이로 보아 「일신수필」 ‘車制’의 원문은 『연행음청록』(4)가 지어진 후에 『연암설총(2)』가 출현하고, 그 후 『행계잡록(2)』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 6〉의 ‘7월 16일’ 조목에서 세 이본이 서로 다른 부분은 모두 여섯 곳이다. 『연행음청록』(4)와 『연암설총(2)』의 ⑥“五六”과 ⑨六은 『행계잡록(2)』에는 ⑥“七八”로 ⑨九로 바뀌어 있다. 이는 『연행음청록』(4)의 원문을 『연암설총(2)』에서 그대로 옮겨 쓰고, 이후 『행계잡록(2)』에서 이 두 곳을 교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행음청록』(4)의 ⑦兒, ⑧恭, ⑩余, ⑪兒는 『연암설총(2)』과 『행계잡록(2)』에는 모두 삭제되어 있다. 이는 『연행음청록』(4)의 원문을 『연암설총(2)』에서 교정한 것을 옮겨 쓰고, 이후 『행계잡록(2)』에서도 『연암설총(2)』의 원문을 그대로 쓴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행음청록』(4)·『행계잡록(2)』·『연암설총(2)』의 선후 관계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연행음청록』(4)·『행계잡록(2)』·『연암설총(2)』의 선후 관계

다음으로 『연암설총(2)』과 『행계잡록(2)』의 원문이 개작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교정된 내용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행음청록』(4)와 『연암설총(2)』·『행계잡록(2)』에 수록된 「일신수필」 ‘7월 17일’ 조목의 원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7〉은 「일신수필」 ‘7월 17일’ 조목 중에서 護行通官 雙林과 연암의 비복 張福이 대화한 내용을 옮겨놓은 것이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피차 서로의 말을 시험해 보기 위해 쌍림은 조선말로 장복은 중국말로 서로 문답하였다. ①“其謂”부터 “辭也”까지 129자에서 전반부는 쌍림이 장복의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가상해서 말한 것이고, 후반부는 장복이 가난해서 장가들지 못했다고 하는 쌍림의 말을 듣고 불쌍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②“雙林”부터 “大笑”까지 69자는 장가들지 못한 노총각의 남성의 생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문답으로, 당시의 풍속으로 보아서는 금기시하는 충격적 묘사이다. 앞의 ‘장가들다’를 ‘入丈’이라고 우리식

36)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271쪽. 이와 관련하여, 연민문고에 소장된 『잡록(하)』와 『열하일기(정)』의 「옥갑야화」 중 ‘허생전’에 있는 박제가의 미평에서 그의 자나 이름이 지워져 누구의 평어인지 알 수 없게 된 것도 같은 경우이다.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서, 이것 역시 그렇게 유추해야 하는데 전혀 알 수 없다.[37] ③“又問”부터 “十里”까지 205자는 장복과 쌍림이 의주의 기생에 대해 문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표 7〉『연행음청록』(4)·『행계잡록(2)』·『연암설총(2)』의 ‘7월 17일’ 조목의 원문 비교

燕行陰晴錄 卷之四	… ①其謂張福曰 你見吾父主麽 張福曰 出敕時 吾瞧瞧了 大監好鬍子 吾爲步從 連爲勸馬聲 大監滿臉堆笑道 你聲好 不住的連唱 吾不住的唱 大監連道好好 行到郭山 親手掇賜了茶啖 雙林曰 吾父主眼孔裏妖惡 張福大笑道 如拿雉之鷹眼 雙林曰 是也 雙林曰 你入丈否 張福曰 家貧未聘 雙林連道不祥 不祥者 東話傷歎之辭也 ②■■■ ③又問 義州妓生幾個 張福曰 也有三五十個 雙林曰 多有美的麽 張福曰 奢遮的 道甚麽 也有楊貴妃等物也 有西施等物 有名柳色的 也有羞花惹月的態 有名春雲的 也有停雲斷腸的唱 有名明卿的也 有十八那好本事 雙林大笑曰 有如此妓生 而出敕時 何不現身 張福曰 若一看見時 大監們魂飛九霄雲外 手裡自丟了萬兩紋銀子 陶冶裏鎔得都化成水 渡不得這鴨綠江來哩 雙林拍掌胡盧道 吾前頭隨敕時 你能悄悄地引來了 十分好本事的 張福掉頭曰 不完了 有人覺時 開頭也 兩人俱大笑 如此問答而行三十里 …[38]
燕巖說叢 二	… ①其謂張福曰 你見吾父主麽 張福曰 出敕時 吾瞧瞧了 大監好鬍子 吾爲步從 連爲勸馬聲 大監滿臉堆笑道 你聲好 不住的連唱 吾不住的唱 大監連道好好 行到郭山 親手掇賜了茶啖 雙林曰 吾父主眼孔裏妖惡 張福大笑道 如拿雉之鷹眼 雙林曰 是也 雙林曰 你入丈否 張福曰 家貧未聘 雙林連道不祥 不祥者 東話傷歎之辭也 ②雙林曰 你尙未丈家時 紫的不怨否 張福大笑曰 吾巴其不時間起立時 吾乃以一拳頭打煞了 那巴其叫了一聲唧 都吐了一口胎裡乳 擸入那龜甲裡去 三年不出頭 雙林大笑 ③又問 義州妓生幾個 張福曰 也有三五十個 雙林曰 多有美的麽 張福曰 奢遮的 道甚麽 也有楊貴妃等物也 有西施等物 有名柳色的 也有羞花惹月的態 有名春雲的 也有停雲斷腸的唱 有名明卿的也 有十八那好本事 雙林大笑曰 有如此妓生 而出敕時 何不現身 張福曰 若一看見時 大監們魂飛九霄雲外 手裡自丟了萬兩紋銀子 陶冶裏鎔得都化成水 渡不得這鴨綠江來哩 雙林拍掌胡盧道 吾前頭隨敕時 你能悄悄地引來了 十分好本事的 張福掉頭曰 不完了 有人覺時 開頭也 兩人俱大笑 如此問答而行三十里 …[39]
杏溪雜錄 二	①②③■■■[40]

〈표 7〉에서 보듯이『연행음청록』(4)에는 ②의 “雙林”부터 “大笑”까지 69자뿐만 아니라 이 글자들이 씌어 있는 행간까지 모두 먹으로 지워져 있다. ①, ②, ③의 내용이 모두 수록된 책은『연암설총(2)』이다. 앞서 살폈듯이『연암설총(2)』는『연행음청록』(4) 이후에 나온 책이다. 이로 보아『연행음청록』(4)의 내용을 교정해『행계잡록(2)』에 옮겨쓰면서, ①, ②, ③이 모두 양반으로서의 체면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먹으로 지운 것으로 생각된다.『행계잡록(2)』에는 ①, ②, ③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빠진 채 “■■■”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로 보아『행계잡록(2)』는 ①의 첫 부분인 “其謂張” 세 글자를 쓰다가 ①과 ③의 내용 또한

37) 김혈조,「『열하일기』 정본화 작업의 제문제」,『한문학연구』 71, 한국한문학회, 2018, 19쪽.
38) 연민문고본,『연행음청록』(4),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29~30쪽.
39) 동양문고본,『연휘(14)』,『연암설총(2)』, 일본 동양문고, 42~44쪽.
40) 연민문고본,『행계잡록(2)』,『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64쪽.

②와 같이 양반으로서의 체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위의 세 글자를 먹으로 지우고 ①과 ③의 원문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박지원은 당시 사람들이 위와 같이 양반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지적하면서 문체가 순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불식시킬 목적으로 『연행음청록』(4)와 『연암설총(2)』을 교정하여 『행계잡록(2)』에 옮겨 쓰면서 해당 원문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Ⅳ. 맺음말

국내외에 현전하는 『열하일기』 이본들은 '초고본 계열 이본', '『열하일기』 계열 이본', '『연암집』 외집 계열 이본', '『연암집』 별집 계열 이본' 등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초고본 계열 이본'은 가장 초창기에 필사되었으며, 아직 열하일기의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지 못한 이본들이다. 이에 해당하는 이본으로는 단국대 연문민고에 소장된 『행계잡록(1)(2)(3)(5)(6)』·『행계집』·『잡록(상)(하)』·『열하일기(원)(형)(이)(정)』·『연행음청(건)(곤)』·『황도기략(1)(2)』 등이 있다. 이 이본들은 특정한 편들은 수록하고 있되 권차조차 아직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편의 전체적인 순서도 뒤죽박죽이며, 동일한 편이 하나의 책에 중복 수록된 경우도 종종 있다.[41] 본 연구에서 처음 확인된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은 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초고본 계열 이본'으로, "연행음청기"와 "연행음청록'이라는 서명에서 보듯이 아직 책의 이름조차 확정하지 않았을 정도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한 이본이다.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는 『열하일기』 성립과정이나 초기 이본들의 계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동양문고본 『연암설총』은 『연행음청』 2책과 『열하일기』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연행음청(1)』은 『열하일기』 중 제1편 「도강록」과 제2편 「성경잡지」를 필사한 것이고, 『연행음청(2)』는 『열하일기』 중 제3편 「일신수필」과 제4편 「관내정사」를 필사한 것이다. 또한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의 제3장 제1행에 씌어 있는 "熱河日記卷之"는 "燕行陰晴卷之"를 지운 후에 덧쓴 것이고, 『행계잡록(2)』의 제2장 제1행에 씌어 있는 "熱河日記卷之" 또한 "燕行陰晴卷之"를 지운 후에 덧쓴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암설총(1)(2)』와 『행계잡록(1)(2)』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된 『열하일기』 이본들은 제1편 「도강록」에서 제4편 「관내정사」까지의 표제가 『열하일기』가 아닌 『연행음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42] 또한 표제가 『연행음청』이라고 씌어 있는 이본 중 『연행음청기』(3)과 『연행음청록』(4)는 「성경잡지」와 「일신수필」의 최초 원고이거나 그에 가까운 이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행음청』이라고 씌어 있는 이본의 선후 관계는 『연행음청기』(3)·『연행음청록』(4) ⇨ 『연암설총(1)(2)』

41)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돌베개, 448~452쪽.

42) 이는 『행계잡록(3)』 제53장 제1행에는 『열하일기』 제5권에 수록된 「막북행정록」 표제와 권차가 "熱河日記卷之一"로 씌어 있는 것을 통해서 거듭 확인할 수 있다(〈사진 3〉 참고).

⇨『행계잡록(1)(2)』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민문고본『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는 박지원이『열하일기』를 저술하면서 주 자료로 활용한 책과 원문을 교정한 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연행음청기』(3)에 수록된「성경잡지」에는 7월 10일 심리하를 출발해 1월 14일 소흑산에 이르기까지의 여행기록과 심양에 체류하며 겪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연행음청록』(4)에 수록된「광녕잡지」에는 7월 15일 신광녕을 출발하여 7월 23일 산해관에 이르기까지 연도에서 보고들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박지원이『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를 저술하면서『연행음청(곤)』을 주 자료로 활용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는 이 두 책을 쓰면서 80일간의 연행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본 풍물과 체험을 상세하게 추가하는 방식으로『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를 저술한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박지원이『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의 원문을 교정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는『연행음청기』(3)에는 빠져 있는「산천기략」의 원문 409자를『연암설총(1)』과『행계잡록(1)』에 새로 추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는『연행음청기』(3)과『연행음청록』(4)에 수록된「성경잡지」와「일신수필」의 원문을 교정하면서 양반으로서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은 표현을 삭제하거나 원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등 개작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수정한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열하일기』이본의 계통을 규명하고『열하일기』의 저작과정과 초기 이본의 교정 양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동양문고본, 『연휘(13)(14)』, 『연암설총(1)(2)』, 일본 동양문고.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건)』, 『연민문고 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4)』,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곤)』,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연행음청기』(3),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연행음청록』(4), 단국대 석주선기념박물관.

연민문고본, 『행계잡록(1)(2)(3)(5)(6)』, 『연민문고 소장 연암 박지원 작품 필사본총서(1)(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김명호, 「『연행음청』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김명호, 「『행계잡록(1)(2)(3)(5)(6)』 해제」, 『단국대 소장 연민문고 〈동장귀중본〉 해제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김명호, 『연암 문학의 심층 탐구』, 돌베개, 2013.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돌베개, 2022.

김혈조, 「『열하일기』 정본화 작업의 제문제」, 『한문학연구』 71, 한국한문학회, 2018.

노경희, 「『燕彙』의 이본 검토를 통한 조선후기 연행록의 유통과 전승」, 『규장각』 4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이가원, 「『연암집』 逸書 · 逸文 및 부록에 대한 소고」, 『국어국문학』 39 · 40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68.

* 이 논문은 2022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22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2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2년 10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

A Study on the New Data『Yeonghaengumcheonggi燕行陰晴記』(3) and『Yeonghaengumcheongrok燕行陰晴錄』(4) of the Antecedent Copy of the『Yeolhailgi熱河日記』

Jung, JaeChul*

Recently, I confirmed the『Yeonghaengumcheonggi燕行陰晴記』(3) and『Yeonghaengumcheongrok燕行陰晴錄』(4) at Dankook University's Yeonmin Bookstore. It was with a prose work by Park Ji-won. 『Yeonghaengumcheonggi』(3) has a total of 32 pages including the cover and『Yeong haengumcheongrok』(4) has a total of 30 pages without a cover or list. These two books belong to the "first draft series" among the『Yeolhailgi熱河日記』, identified by the author presumed to be the first manuscript or close to that of the『Yeolhailgi』 part 3「Sunggeonggabgi盛京雜誌」 and part 4「Ilsinsoopil馹汎隨筆」.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 looked at these texts, which have the title "Yeonghaengumcheong燕行陰晴" among the different version of『Yeolhailgi』 collected at home and abroad. And I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version of『Yeolhailgi』 and the precedence and correction patterns of the『Yeonghaengumcheonggi』(3) and『Yeonghaengum cheongrok』(4).

Dankook University's Yeonmin Bookstore contains two books: The『Yeonghaengumcheong (Gun)(Gon)燕行陰晴(乾)(坤)』 at Yeonmin Bookstore. 『Yeonghaengumcheong(Gon)』 among them has a total of 22 pages. This book starts with entering Gaeseong開城 on May 10th from Yeonam燕巖 to afforestation on July 30th from Hotaha호타하滹沱河 to Jolim棗林. The schedule of the performance written here is 44 days more than June 24 recorded in the「Dokangllok渡江錄」 of the『Yeolhailgi』 and Five days are less than August 5th, which is recorded in the「Gannaejungsa關內程史」. At the time of writing the『Yeonghaengumcheonggi』(3) and『Yeonghaengumcheongrok』(4), Park Ji-won used the contents of the『Yeonghaengumcheong(Gon)』, which records the 80-day journey, as the main data. And he added the customs and experiences he saw in detail.

In Dongyang Bookstore in Japan, there are eight books of『Yeonamseolchong燕巖說叢』 among the manuscripts with the title "Yeonhui燕彙". This book is a combination of two books,『Yeong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

haengumcheong燕行陰晴(1)(2)』, and six books,『Yeolhailgi(1)(2)(3)(4)(5)(6)』. Among them,『Yeong haengumcheong(1)』 is a transcription of「Dokangllok」 and「Sunggeonggabgi」 and『Yeongha engumcheong(2)』 is a transcription of「Ilsinsoopil」 and「Gannaejungsa」. In addition, Dankook University's Yeonmin Bookstore contains five books on『Haenggyejabnok(1)(2)(3)(5)(6)』. Among them,『Haenggyejabnok(1)』 is a transcription of「Dokangllok」" and「Sunggeonggabgi」 and『Haen ggyejabnok(2)』 is a transcription of「Ilsinsoopil」 and「Gannaejungsa」.『Yeonghaengumcheong (1)(2)』 is a transcription of a book in which Park Ji-won corrected the original texts of『Yeonghaen gumcheonggi』(3) and『Yeonghaengumcheongrok』(4) to the extent that they were close to the adaptation. And『Haenggyejabnok(1)(2)』 is a transcription of Park Ji-won's previous correction by re-correcting it. This study is thought to be helpful in clarifying the lineage of the different version of the『Yeolhailgi』, which is intertwined like a riot.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investigat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Yeolhailgi』 and the correction pattern of early copies.

[Keywords] Yeolhailgi熱河日記, Park Ji-won朴趾源, Yeonghaengumcheonggi燕行陰晴記, Yeonghaengumcheongrok燕行陰晴錄, Yeonghaengumcheong燕行陰晴, Yeonamsulchong燕巖說叢, Haenggyejabnok杏溪雜錄